

## <끼리 넘어 우리: 예술을 통한 세대간 공감> 참가 연사

---

### 발제자

### 소개 및 약력



**수잔 랭포드**

매직 미 디렉터

수잔 랭포드는 그래픽 디자인과 공동체 미술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1989년 매직 미를 창립하였고 출판, 교육, 공동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경험을 나누는 교육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수잔은 세대 간 교류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서 『경험 나누기(2001)』를 수 마요와 공동 저술하였다. 수잔은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브라질 등지에서 예술을 통한 세대 간 교류 실무 및 프로젝트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업무를 제공하며, 영국 세대 간 교류 실무 및 관리센터의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녀는 2007년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가 발간한 저서 『영국 일상 속의 영웅』에서 33인의 영웅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잔은 매직 미를 통한 사회적 공헌을 인정받아 2010년 6월 대영제국훈장(MBE)을 수여 받았다.



**수 마요**

매직 미 아티스트

수는 연극 제작자로, 커뮤니티 일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와 아이디어에서 발안되는 작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한다. 20년 이상 매직 미에서 세대간 교류 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 아티스트들의 교육을 맡아왔다. 특히, 지난 14년 동안 세대가 다른 여성들의 협업을 통한 작품 개발을 맡았으며 시위, 아름다움, 발언하기 등의 주제를 다룬바 있다. 영국의 주요기관인 오벌하우스(Ovalhouse), 로열 알버트 홀(The Royal Albert Hall), 로열 코트 극장(The Royal Court Theatre), 사우스뱅크 센터(South Bank Centre), 내셔널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등과 협업하였다. 수는 현재 매직 미에서 Decorum Project를 담당하고 있다.



**민운기**

스페이스 빔 대표

예술의 사회적, 지역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2002년 개관한 대안문화공간 스페이스 빔을 꾸려가며 각종 전시 및 비평지 발간, 공공예술프로젝트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 및 진행했다. 현재 인천 동구 배다리마을을 거점으로 '열린 도시공동체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문화예술단체 및 활동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예술활동을 제도화된 영역에서보다는 구체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풀어내면서 다양한 활동 방식과 언어를 찾아내고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



**김현주**  
작가

2005년 독일 카셀국립대학교 조형예술학 전공 학사, 석사를 졸업하였다.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지역의 특정 장소와 사람 고유의 내부적 경험과 미시적 시각을 만들어 낸다. 김현주 작가의 작품들은 역사와 개인의 상처를 화해하고 해소하려는 임상역사적 성격이 있다는 평가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는 소외된 죽음들을 위령하고 보통의 삶을 동시대로 불러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몸 부름 말/평화문화진지2018>, <독거의 기술/이야기청프로젝트2018>, <내 귓속에 묻힌 묘지들 2016-2018> 등이 있다.



**조지연**  
경기문화재단 차장

성균관대 예술학 박사를 수료하고 공연장에서 공연 제작 PD 로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였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에서 문화정책 연구와 커뮤니티, 지역재생 관련한 문화기획 일을 하고 있다.

---